



# 김호근

아트북 전시·판매장 VOOK'S 연 전시기획자 김호근

## 안복지수<sup>안福指數</sup>를 높여라, 아트북의 '재미' 전하는 이색공간 VOOK'S

안복지수<sup>안福指數</sup>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이미지의 세상, 그가  
운데 가장 좋은 것, 보기 드문 것을 많이 보아온 사람의 '즐거움의 정도'  
를 뜻하는 단어다. 전시기획자 김.호.근.(61) 씨가 만든 조어<sup>造語</sup>인데, 그  
는 최근 사람들의 안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아트북 마니아를 위한 가게 북.  
스를 냈다. 사면<sup>四面</sup> 빼곡히 꽂혀 있는 세계의 아트북들, 공간을 분할해 만  
든 단아한 갤러리, 한 잔의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책을 고르는 사람들...  
북스는 안복지수를 높여줄 이색공간임이 분명했다.

“지난 4월, 인사동 서호갤러리에서 ‘세계의 아트북 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전시기간 동안 무려 3,400명의 사람들이 갤러리를 찾았지요. 전시를 준비하며 미술대학과 도서담당자에게 홍보전단을 보냈는데, 방문객들을 가만 보니 관련자가 아닌 일반인이 대개였습니다. 아트북에 대한 관심을 물어보면 ‘별로’라고 대답할 이들임에도 전시장에서는 마니아 이상으로 제대로 보고 또 즐기더군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접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게지요. 거기에 힘을 얻어 바로 아트북 가게 북스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각예술문화의 중심지인 인사동에 자리를 마련하고서 VOOK’S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북스의 ‘V’는 비주얼 visual에서 따온 것으로, ‘보는 즐거움이 넘치는 아트북’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북스에 준비된 아트북은 5~6,000권, 옆으로 벌린 폼으로는 미술, 사진, 문화, 공예, 디자인 등 비주얼 관련분야를 통째로 끌어안고 있다. 북스의 절반은 갤러리로 운영될 예정인데, 사람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북스로 모으겠다는 그만의 기획이 돋보인다. 한편 각 지방에서 열리는 수준 높은 전시회의 도록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북스만이 갖는 특별한 기능이다.

“상업적인 공간으로 북스를 평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트북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책이라면 텍스트 중심의 것들만 생각하고 화집과 사진집 같은 아트북은 생각지 못하는 우리문화를 돌아봐 준다면 더없이 좋겠지요. 새로운 이미지들이 활발히 생산되고 있는데, 좋은 아트북을 가려 사람들과 소통해 하는 일은 제가 갖는 즐거움이기도 할 테구요.”

김호근 씨에게 아트북은 신매체로 통한다. 책이라는 전통까지 과감히 벗겨낼 순 없지만 세계 사람들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으며, 텍스트와 영상 사이에 특수성을 갖는 아트북을 신매체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신매체라는 파격적인 정의를 갖는 아트북의 기능은 무엇인가, 라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재미”라고 명료하게 대답한다.

“책을 보면 재미있다, 그것이 전부지요. ‘책은 마음의 양식’ ‘책을 통한 교양습득’과 같은 낡고 근엄한 소리는 질색입니다. 아트북 역시 그렇지요. ‘샤갈의 그림이 좋아’ 또는 ‘샤갈의 그림을 보는 일은 재미있어’라고 하지, 거기에 미적체험, 예술체험이란 고상한 단어가 소용된다면 억지스럽습니다. 스포츠와 레저처럼 재미있는 책읽기, 이런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책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처에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그 가운데 책도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애급입니다. 영상세대가 책을 멀리한다고 걱정이지만, 좋은 아트북을 안내하면 그들이 이미지를 통해 많은 정보를 끌어내리라 믿어요.”

그는 만나는 지인마다 자신의 그런 생각을 서슴없이 전한다. 일례로 은행 간부를 만난 자리에서 본점 도서실 책 구입때 아트북을 빠뜨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도서구입비 지원이 넉넉지 않아 조금 비싼 아트북 구입이 꺼려진다면, 사원복지비를 통해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사원들을 위한 운동기구를 마련하는 것과 아트북을 구입하는 것은 별반 틀리지 않는 것이다. 아트북에 대한 진한 애정이 묻어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전시 기획자이자 아트북 가게의 사장인 그가 미술학도가 아닌 국문학도였다는 사실이다.

“특별한 계기라고는 없었어요. 연대 도서관에 특히 아트북이 많았는데, 보고 좋으니까, 그리고 재미있으니까 그쪽 세계로 자연 빠져들게 되었죠. 당시 도서분류법으로 800번대가 미술서였는데, 800번 서가에 꽂힌 미술서 대출열람표에 제 이름이 안 적힌 것이 없을 정도로 탐독했습니다. 루마니아 출생의 추상카툰 창시자 소울 스타인버그와의 만남은 잊을 수 없지요. 1940년대에 출간된 책인데, 대출열람증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쓸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대출을 연장하고 반환하고 다시 대출하면서 볼 만큼 매력적인 책이었지요. 최근 모교에서 건축공부를 하는 지인의 아들에게 그 책을 추천했는데, 대출열람증에 여전히 제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고 전해주더군요.”

‘국문학과 예술학 사이’라는 독특한 관계는 지금까지 이어져, 현재 그는 대학의



• VOOK'S에서 판매되는 세계의 아트북들.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지만 강의과목은 디자인 전반을 가르치는 편집설기를 맡고 있다. 그는 강의에 앞서 선별해 온 아트북 두세 권을 학생들에게 건네주고 수업을 시작하는데, 그가 건넨 아트북은 수업 내내 뒤로 앞으로 전달되며 학생들을 즐겁게 한다. 대학시절 아트북에서 느낀 재미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해외 인터넷 서점을 이용해 아트북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텍스트 위주의 책이라면 몰라도 아트북 구입에 있어서는 경계해야 할 일 중의 하나지요. 목차보기와 이미지보기를 통해 대략 어떤 아트북이다, 하는 느낌은 오지만 말 그대로 그런 느낌일 뿐입니다. 아트북 구입을 위해 여러 나라를 다니는데, 새로운 작가들의 아트북과 새로운 정보를 현장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발품을 팔아야 할 이유죠. 아직은 아트북 인식과 독자층이 얇아 국내 아트북 출판이 제한적이지만 북스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이 변한다면 국내 아트북 출판도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지난 4월 성공적으로 전시를 끝낸 ‘세계의 아트북 전’을 다시 기획, 준비하고 있다. 이미 아트북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엿본지라 전시를 준비하는 마음은 내내 즐겁다. 단 한 가지 ‘재미’만으로도 우리를 사로잡는 아트북의 매력을 느껴 보고 싶다면, 늦여름에 열릴 ‘세계의 아트북 전’을 찾아가보자. 기다림의 여유가 없다면 북스를 찾아 하루하루 안복지수를 높여두는 것도 괜찮겠다. 남이 못 본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그가 전하는 안복지수의 핵심이다. **한글**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